

2020년 11월 8일 "아브라함 이야기(10) 안타까운 롯의 신앙"(창 19:23-30)

18 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19 장의 주인공,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 롯의 신앙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14 장**에서는 적군에게 사로잡혔던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기로 인해 구출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롯은 정착한 소돔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 절**, 천사들이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피하라는 데도, 그는 지체합니다(**16 절**). 천사 말이 미심쩍기도 하고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천사가 롯/아내/두 딸을 잡아 끌어 성밖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16 절 후)**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긴박한 경고를 줄 때 그는 다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18 절**).

19-21 절, 소알(뜻: 작음, 소돔의 축소형)로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긴박감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원하면, 롯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안 듣고 있습니다(안 따름).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소돔의 삶을 매듭짓고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하셨을 텐데, 그러한 새출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줄기가 쭉쭉 크다가 마디를 맺을 때가 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성장이 더디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전 줄기를 매듭지어야 할 마디가 형성되어야 할 삶의 굴곡의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또는 어려움이 동반하는 때이겠지요.

결국 롯은 소돔을 매듭지지 못하고 그 연장선인 소알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았습니다(**30 절**). 그의 인생의 전반적 특징은 창조질서에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딸들과 아버지 사이에 자녀를 얻은 것은 역사의 독자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성경을 모르는 세상인들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죄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맞지만 창세기 문맥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세상) 사이에서 중보한 것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피조계를 다스리라는 소명의 회복이기도 합니다(**창 1:28**). 소돔을 중보한 것은 그가 창조 언약의 회복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세 심판 사건은 모두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현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만 중보자(아브라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원받은 중보의 대상이 있었죠, 롯과 딸들입니다(**29 절**).

롯이 구원받은 후 어떤 행보를 걸었어야 할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보자 아브라함에게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과 목축을 다 잃었지만 소돔의 삶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재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서 산 속에 숨어서 삽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숨으며 자기 성을 쌓으며 살려고 합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은 완고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술 기운에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위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롯 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정체되고 걸돌고 두려워하며 유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만 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을 깊은 영적 예배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롬 12:1-2 참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주를 향한 경외심은 나의 변화를 원하는 절실한 소원이 따릅니다.

롯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변화하고 싶은 의지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합당한 교훈입니다.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할지를 알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롯이 소돔 심판에서 구원받고 보여준 그의 신앙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오늘 날 나를 포함한 성도들과 롯의 모습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